



정시 전형 충원 합격

정시 전형에서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발생하면 차점자에게 합격을 통지하는데, 이를 '충원 합격' 또는 '추가 합격'이라 함. 정시 전형에서는 가/나/다군별 1회씩 3회를 지원할 수 있음. 이때 복수로 합격한 수험생은 한 대학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는 대학은 결원이 생겨 추가 합격자를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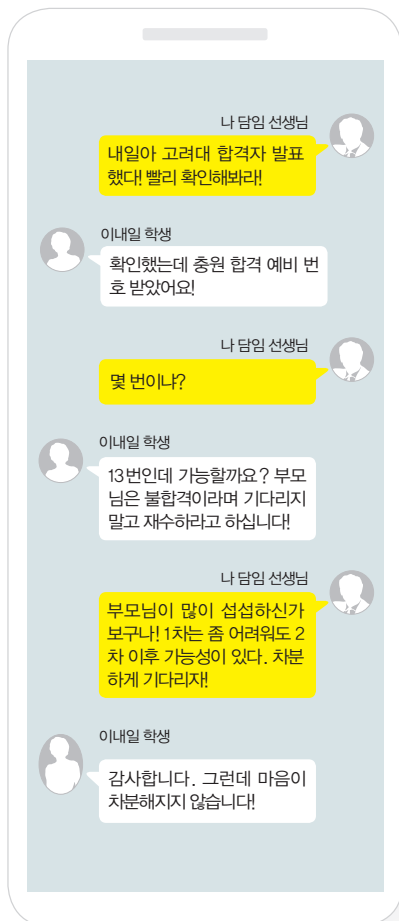
글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신동원 이사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소통하려 노력했다. 서울 휘문고 진학교감,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회장을 거쳐 휘문고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로, 진학 지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국 진학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한다.

✦ 정시 전형에서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능 점수를 알고 지원합니다. 또한 대교협 및 교육청, 대입 학원, 입시 관련 업체 등에서 전국 모든 대학 모집 단위의 합격 가능 점수를 발표하고, 모의 지원을 통하여 합격 가능 여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정시 가군, 나군, 다군에 지원할 때 상향 지원이나 적정 지원도 하지만, 확실하게 합격하려고 5~6점을 낮추어 하향 지원도 합니다. 1월 하순경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면 3군데 모두 떨어진 안타까운 수험생도 있지만 어떤 수험생은 2~3군데 대학에 합격합니다.

✦ 올해 어떤 수험생이 가군은 서울대 의예과를 지원하고, 나군은 연세대 의예과, 다군은 인하대 의예과를 지원했는데 3군데 모두 합격했습니다. 이 수험생은 당연히 가군 서울대 의예과에 등록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세대와 인하대에 결원이 생기고,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1차 추가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연세대나 인하대에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면 다른 대학에 또 결원이 발생하므로 그 대학들은 2차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도미노처럼 전국 대학에 추가 합격이 파급됩니다.

✦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에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대학도 상당히 긴장합니다. 현재 합격해서 등록한 성적이 좋은 학생은 빠져나가고, 성적이 낮은 학생을 합격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이 과정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자원율이 낮은 학과는 합격선이 크게 낮아지다가 결국 합격선이 붕괴되는 일, 즉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합격하는 일이 벌어지면 대학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중하위권 대학은 충원 합격을 통보해도 등록하지 않아 결국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들 대학은 2월 하순에 추가 모집을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특히 충원 등록 마지막 날엔
전화로 추가 합격 통지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생활 속 입시 용어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에 수험생은 애간장이 녹을 정도의 괴로움을 체감합니다. 재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수험생이 3군데 대학 모두 불합격하고, 어정쩡한 예비 번호를 받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매일 인터넷으로 확인해도

합격 소식은 뜨지 않고, 충원 마감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 그 불안과 초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충원 기간 내내 매일 합격 통보와 등록이 반복되는 등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대학마다 추가 합격 일정이나 절차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충원 방식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한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매일 방문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지원서에 기록한 휴대전화는 항상 손에 들고 다녀야 합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와도 꼭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로 “추가 합격하셨습니다”라는 합격 통보를 받으면, 대학이 안내한 시한까지 등록을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등록 시한을 넘기면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수험생에게 추가 합격 통보를 합니다. 한 대학에 등록한 상태에서 추가 합격 통보를 받고 그 대학에 등록할 예정이면, 즉시 이미 등록한 대학에 등록 취소 신청을 하고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심화 응용 사례

추가 합격자 수가 특별히 많은 대학이나 학과가 있나요?

오른쪽 표와 같이 추가 합격자 수도 경향성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주로 자연 계열 학과 및

비인기 학과에 추가 합격자 수가 많습니다. 타 대학 의과대학에 합격하거나 유망한 학과에 합격할 경우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계열 학과에서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연세대와 고려대는 합격선이 높은 경영학과나 전기전자공학부에 집중됩니다. 서울대와 복수로 합격하면 서울대에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추가 합격자 수는 대학과 학과별로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대			연세대		
모집 단위	2019	2018	모집 단위	2019	2018
간호대학	18	15	경영학과	127	137
전기·정보공학부	9	12	전기전자공학부	70	80
화학생물공학부	9	10	기계공학부	40	52
산림과학부	7	4	경제학부	42	55
기계공학전공	6	3	화공생명공학부	40	53
재료공학부	6	2	컴퓨터과학과	33	29
건설환경공학부	5	3	신소재공학부	20	21
응용생물화학부	3	5	생명공학과	16	28
식품·동물생명공학부	4	3	수학과	18	21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5	0	치의예과	26	12
건축학과	4	1	의예과	22	14
식품영양학과	2	3	응용통계학과	10	16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2	2	정치외교학과	13	13
원자핵공학과	1	3	화학과	9	19